

追悼辭(仁溪선생)

인계권태완 박사님!

오늘 선생의 서거 1주기를 맞이한 이 자리에는 한국콩연구회에서 현 회장인 박금룡박사, 현 사무국장인 부산대학의 전태환교수, 그리고 문윤만 부회장겸 콩생산단지회장 등이 선생의 묘전에 서있으며, 박사님과 함께 콩세계과학관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이철호교수, 송희섭박사, 황인경교수, 문갑순교수, 이영호박사, 이석하교수, 유미경님과 주식회사 정식품에서 박점선 중앙연구소 소장과 허문행 수석연구원이, 그리고 사모님과 이철호교수의 부인께서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함께해 있나이다.

요즘시대로 보면 86세로 세상을 하직하신 선생의 춘추가 너무 애석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선생의 만년의 꿈이셨던 ‘콩세계과학관의 개관과 전시관’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참관할 수 있으셨고,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콩세계과학관이 세상에 그 빛을 힘차게 발산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셨으니 저희 후생들로서는 매우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고 인계권태완박사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콩연구회소식지 316호(2013.10.25)에 실었던 “콩 박물관의 탄생 비화” 중 한 토막을 여기에 옮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사님은 1996년 3월, 독일 Hohenheim대학에서 한독기술협력10개년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고, 이 발표회가 끝난 후 Ulm지역에 있는 빵 등 여러 박물관을 견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권박사는 독일 내에는 <맥주박물관>, <감자박물관>, <아스파라가스박물관> 등 단일품목으로 박물관이 십여 군데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권박사는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내내 콩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에 콩을 테마로 한 박물관의 건립을 생각했

다. 독일을 다녀온 후, 콩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미 있는 모임이 5년 만에 이루어졌다. 2001년 5월26일 토요일 오후 4시, 정재원, 권태완, 홍은희, 이홍석, 권신한, 김석동박사 등 9인이 작물시험장(현 국립식량과학원) 2층 회의실에서 콩 박물관 건립추진을 위한 첫 모임을 갖게 된다.” 고 하였고, 이로부터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콩세계과학관은 고고의 성을 세상에 발하게 되었습니다.

고 인계권태완박사님! 실로 저희들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여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고서야 선생님의 소년다운 꿈을 이루게 되었나이다.

한 가지를 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콩연구회소식지 338호(2017.7.20)에 실린 박사님 추모의 글 후미 부문에 이 글을 쓴 문갑순교수는 서술하기를, “권박사님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립묘지로 가실 자격이 있지만 박사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가꾸시던 집 뒷산의 나무아래에 묻히기를 원하셨다. 박사님 가족 분들이 선택한 나무는 양쪽의 균형이 잘 잡히게 성장한 주목이었다. 그 나무 모습이 올곧은 박사님의 성품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올곧으면 가족들은 힘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생동안 곧게 사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족들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사모님과 성당 뒷자리에 앉아 미사를 드리셨다는 경건한 모습을 기억하며 주목 아래에서 영면의 휴식을 취하시기를 기도해 본다.” 고 하였습니다.

고 인계권태완박사님! 당신은 이 시대를 앞서가시며 큰 가르침을 주신 우리들의 진정한 어른이였습니다. 편안히 영면하시옵기를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깊이 빌겠습니다.

2018戊戌년 4월 23일
후생 한국콩연구회 고문
김 석 동 합장